



광주세계아리랑축전 개막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이 3일 광주 금남로 민주평화광장 및 금남로 공원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본 행사인 '우등의 빛-2013년 오늘'이란 내용으로 풍물판굿 및 삼보놀이 등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은 3일 본 행사에 이어 4·5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주제공연인 뮤지컬 '빛과 아리랑'이 공연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임대부진' 남구 신청사에 대형 의류 매장 들어서나

### 구청, '전통시장 보호 조례'까지 개정 입주 추진 지역 중소상인들 "수익에만 급급" 비판 커질듯

광주시 남구가 주월동 신청사에 대형 의류 전문매장 입점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청사 내 대기업 의류 매장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했던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다. 남구는 대형 의류유통업체 이랜드 그룹이 지난달 17일 신청사 지하 1층 및 지상 1층~4층(2만3000㎡)에 임대 형식으로 패밀리 레스토랑과 의류 전문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신청사 위탁개발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지하 1층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편, 지상 1층 일부와 2~4층(약 2만3000㎡)에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등 아울러 매장으로 꾸밀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신청사 건립 뒤 높은 임대료(3.3㎡당 750만원) 때문에 신타 들어서는 업체가 없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기업 의류

매장 입점을 반드시 심사시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장, 남구는 신청사 내 대기업 의류 매장 입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입법 예고까지 마친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남구 신청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에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 관련 조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지역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신청사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면 대기업 매장도 영업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해 눈 앞 수익에만 급급, 지역 영세 중소상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남구가 기존 백운광장 인근에 들어서려던 홈플러스 매장을 반대해왔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중 행태'를 보였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구의회 및 지역 중소 영세상인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질 조짐이다. 신인용 남구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랜드 매장의 입주 여부가 결정되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조사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랜드 그룹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입주 의향을 밝혀왔음에도,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추진을 보류하던 방침이 돌연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청사 주변으로 무등·봉선시장 등이 있지만 이랜드는 아웃도어 등 의류만을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전통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희기자 kimyh@kwangju.co.kr

## 지리산 11일 첫 단풍...24일째 절정

올 가을 지리산 첫 단풍은 11일 정상부를 시작으로 24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가 3일 밝혔다. 천왕봉·노고단·정령치 등 정상부는 11일 이후, 뱀사골·구룡계곡 등 저지대는 24일 전후가 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뱀사골, 구룡계곡 등 주요 계곡 단풍은 11월 초순까지 이어진다. 추천코스는 지리산 단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령치~바래봉~운봉(14km·6시간), 정상재~만북대~정령치(6.3km·3시간 20분) 코스와 아름다운 계곡과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반선(뱀사골)~화계재(9.2km·5시간), 구룡삼곡(육묘정)~구룡폭포(3.1km·2시간) 코스 등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광주시 고교 학생의회

### 의장단 선거 21일 실시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3기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단 선거'가 오는 21일 실시된다. 후보등록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다. 투표는 21일 제3차 학생회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각각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된다. 단독후보일 경우는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생 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기 명품마루 4호점

### 광주역 1층 맞이방에

코레일 광주본부부는 3일 북구 중동 광주역 1층 맞이방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명품마루 4호점을 개점했다. 중소기업명품마루 4호점은 코레일과 IBK 기업은행이 주관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으로, 42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연일 후라이팬·실크 넥타이 등 400점이 상설 전시·판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가업체 중 74%인 31개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역 업체로 선정됐다는 게 코레일 광주본부 측 설명이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9분 해질 18시 13분 달돋이 06시 29분 달질 17시 3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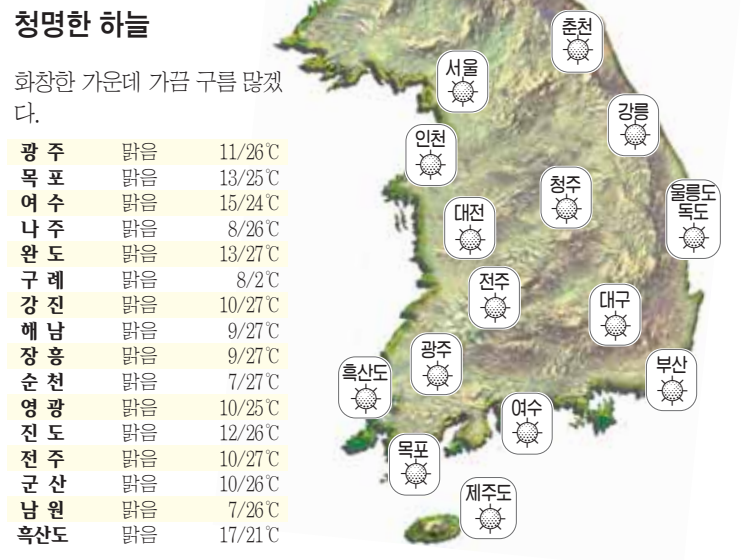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wind direction, spee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sea conditions (바다) and a table for moon phases (달) and tides (조수).



## 중국으로 방향 튼 태풍 '피토' 7일째 제주도 먼바다 영향권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호 태풍 '피토(FITOW)'가 중국 쪽으로 진로를 틀었다. 3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피토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 오는 6일 이후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 쪽으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7일째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피토는 3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730km 부근 해상에서 북쪽으로 시속 7km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이 태풍은 4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450km 부근 해상을,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6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쪽으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던 피토가 중국 쪽으로 방



향을 튼 이유는 한반도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lman brand waterproofing. Features the slogan 'SINCE 1988' and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It includes images of construction sites and a woman applying the product. Text emphasizes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and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Advertisement for Imperium Club. Features the slogan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and 'KBS1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It lists various services like marriage introduction and career counseling,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02) 521-4405' and '275-7766'.